

## 尹 처가, ‘마니신도시급’ 보유에 이어 부동산 투기 수익도 240억 이상

- 현안대응TF, 윤석열 후보 처가 경매와 공매 통해 취득한 토지, 여러 차례 대형 개발 호재로 국토 부 및 공공기관 등에 토지 수용협의취득매각 등으로 얻은 차익 240억 원 규모 추정
- 김병기 단장, “처가 전국 각지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보유 의혹 이어 각지 개발 대형 호재 이용 차익만 240억 원 규모... 부동산 투기일당 집권 시 전국 투기판 우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투기 수익이 240억 원을 넘는 규모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尹 처가 경매·공매 등 취득 개발 보상 수익 현황				
지역	면적	취득가액	처분가액	차익
양평 공흥지구	22,047㎡ (6,669평)	44억 8천만원(추정)	178억 3천만원(추정)	133억 4천만원(추정)
아산신도시	52,921㎡ (16,008평)	30억 1천만원	129억 3천만원	99억 2천만원
양평 병산리1	438㎡ (132평)	0원 (상속)	1억원	1억원
양평 병산리2	413㎡ (124평)	0원 (상속)	2천만원	2천만원
충북혁신도시 인근	10,794㎡ (3,265평)	8억 4천만원	14억 8천만원	6억 3천만원
<b>총 2만6천평 규모 차익 240억원 (추정치 포함) 수준</b>				

\*천만원 미만 절사

※양평 공흥지구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에 적시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시시점 시가와 종료시점 시가를 인용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매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토지 자체 또는 바로 인접한 땅이 ‘혁신도시’ 나 ‘신도시’ 로 지정된 대형 호재를 반복해 누려왔다.

최씨가 2001년 5월경 경매를 통해 30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소재 10필지의 땅은 이후 2004년 2월 충청남도도가 발표한 천안-아산지역의 320만 평 규모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 최씨는 같은 해 7월 해당 토

지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이전, 총 129억 3,675만 원을 받았다. 3년 만에 99억 2,675만 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후 2005년 9월, 최씨는 다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3필지의 토지를 8억 2백만 원에 낙찰받았다. 같은 해 12월, 7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의 지역이 충북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호재가 발생하였다. 이후 최씨는 2008년 2월 인접한 토지를 일부 추가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월 LH에 자신의 토지 4필지를 14억 8,515만 원에 매각한다. 이를 통한 최씨의 차익은 6억 9,696만 원이 넘는다.

최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토지를 통해서도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자신 및 자신과 김건희를 포함한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회사 ESI&D를 통해 2006년과 2011년에 공흥리의 15필지 토지를 사들인다. 이후, 2012년 4월 양평군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를 하는데, 단 53㎡(2필지, 약 16평)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 씨와 ESI&D가 보유한 토지를 사업 대상으로 하였다.

현안대응TF가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의 ‘(개발)개시시점 지가’ 는 44억 8,276만 원으로, ‘(개발)종료시점 지가’ 를 178억 3천만 원으로 평가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ESI&D의 개발분담금을 산정한 바 있다. 즉, 감정 등을 통해 추정되는 최 씨 및 그의 가족회사 ESI&D의 토지가 차 상승 차익이 133억 4,7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 자료회신		
[ 개발부담금산출내용 ]		
구분	산출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 지가	₩17,830,007,075	
② 개시시점 지가	₩4,482,760,953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처가는 전국 각지에 미니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차명 투기 등 각종 편법과 불법을 일삼은 의혹에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과연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며

“윤석열 후보의 권력이 처가의 범죄를 비호하고 부동산 투기 자금의 ‘뒷배’ 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일당이 집권해서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고 밝혔다.